

진격의 시 페퍼스... 홈경기 창단 첫 승

기업은행에 3-0 셋아웃 승리
70일 만에 시즌 2승 올려
범실 줄인 수비 집중력 돋보여
"항상 응원해주신 팬들에 감사"



그저 '하룻강아지'가 아니었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시페퍼스가 길고 길었던 연패 늪에서 탈출했다.

시페퍼스는 18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을 3-0(25-18, 25-22, 25-21)으로 누르고 첫 셋아웃 승리를 거뒀다. 시즌 2승이자 지난 9월 창단한 이래 홈에서 거둔 첫 승리다.

시페퍼스는 지난해 11월 9일 기업은행전에서 첫 승을 거둔 후 70일만에 또다시 같은 팀을 꺾고 승수를 추가했다.

마지막 승점을 올린 기억도 11월 16일 기업은행전에 멈춰있었다. V리그 대회 운영요강에 따르면 3-2로 승부가 갈렸을 때 승리한 팀은 2점, 패배한 팀은 1점을 획득한다. 시페퍼스는 63일동안 한 게임에서 2개 세트를 따내지 못해 단 1점의 승점도 올리지 못했다.

백없이 17연패 수렁에 빠져 있던 시페퍼스. 경기에 앞서 이날 시페퍼스의 승리를 점친 이는 드물었다.

17연패는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은 2012-2013시즌 KGC인삼공사의 20연패이며, 2위 기록 또한 2018-2019시즌 인삼공사의 19연패다.

올 시즌부터는 7개 구단 체제가 완성된 한 시즌에서 한 팀이 뛰는 전체 경기 수가 30회에서 36회로 늘었다. 이를 감안하면 시페퍼스는 자칫 20연패를 넘어 전무후무한 연패 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다. '신나는 배구'를 추구하던 팀 내에서 연패 먹구름이 짙어질 분위기가 짐작되는 건 피하기 힘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고된 일정에 부상병도 늘었다. 엘리자벳은 어깨-팔꿈치 통증으로 출전 빈도가 줄었



18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와 IBK기업은행 말토스의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한 뒤 창단 홈 경기 첫 승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KOV0 제공>

고, 박은서는 고교 시절 겪은 왼쪽 발목 인대 부상이 재발했다. 박사랑과 지민경, 이한비, 구슬, 최가은 등 거의 모든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갖고 있어 전력이 들쭉날쭉했다.

김형실 시페퍼스 감독도 경기에 앞서 "밥그릇 숫자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다. 사기라도 꺾이지 않게끔 대비했다"고 언급했다. 2-3일간 지적이나 주문을 하지 않고, 그저 해보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선수들을 믿어 줬다는 것.

그는 "흥국생명전이나 기업은행전은 우리 선수들도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간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으니, 편하게 경기하면서 한 점, 한 세트에 집중력을 발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의 바람이 통했는지, 18일 기업은행전에서 시페퍼스는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기세였다.

시페퍼스는 튼튼한 수비와 적은 범실, 그리고 자신감으로 기업은행을 압살했다.

먼저 높은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다. 1세트부터 블로킹 득점 6점을 뽑아내는 등 전위 선수들의 블로킹 동선도 정교해졌고, 이한비-문슬기-김세인 등 후위에서도 민첩한 공격 커버로 실점 구멍을 틀어막았다.

'범실 줄이기'에 총력을 쏟은 것도 주요했다. 시페퍼스는 24경기 동안 464회로 7개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범실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13회 범실만을 기록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서브 범실도 6회에 그쳤다. 오히려 기업은행이 21개 범실을 쏟아내며 자멸하는 상황이었다.

김 감독은 "우리가 가장 잘 한 것은 범실을 많이 줄인 점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한 게 잘 통한

것 같다. 오늘 범실 줄이는 면에서 하나의 역사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비 성공과 상대의 범실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마침 기업은행이 불과 3일 전인 15일 흥국생명을 3-2로 이기고 곧장 광주행 버스에 올라 휴식 시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도 호재였다. 컨디션-분위기가 양면에서 우위를 점한 시페퍼스는 공-수 전반에서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이는 3-0 셋아웃 승리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시즌 준비부터 연습, 경기 경험 등 부족한 점이 많아 22패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광주 시민과 팬 분들이 애정 갖고 지켜봐주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단정하고 연마해서 당초 목표했던 5승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란히 수훈선수(MVP)로 선정된 이한비와 엘리자벳은 "팬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한비는 "광주뿐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는 팬 여러분이 '편하게 하라'는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연패해도 괜찮다. 신나게만 해 달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며 "연패가 길어져 속상한 적도 있지만, 팬들의 응원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항상 감사했고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홈에서 보답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말했다.

엘리자벳도 "연패 하다 보니 심적으로 힘들 때 많은데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다.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향팀 KIA 유니폼 입고 싶었다... V12 이루겠다"

나성범 타이거즈 입단식

낯설지만 입고 싶은 유니폼을 입은 '신인 호랑이' 나성범이 "어제 저녁부터 긴장이 됐다"며 KIA 타이거즈 선수로서 첫 공식 무대에 올랐다.

광주 진흥고 출신의 나성범이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입단식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장정석 단장이 나성범에게 47번 유니폼을 입혀주며 KIA 타이거즈 입단이 된 걸 반겼고, 김중국 감독과 장현식-황대인은 축하의 꽃다발을 건넸다.

"KIA 타이거즈 외야수 나성범입니다"라며 입을 연 나성범은 "열심히 하다가 보니 이런 기회가 오고 이런 축하를 받는 것 같다. 너무 기쁘고 개막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준비 잘해서 캠프 때 좋은 모습과 빨리 하나가 돼서 개막전 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니폼 색이 달라졌다. 고향팀이지만 어색하지 않은지.

▲"어색하지만 앞으로 입을 유니폼이기 때문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유니폼이었다. 상대 팀으로 시합할 때 봤는데 유니폼도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검정, 빨간색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잘 조화가 되고 마음에 든다.

-어렸을 때 타이거즈 야구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순간이나 좋아했던 선수는.

▲"해태 시절부터 무등경기장 많이 갔다. 부모님 따라서 경기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야구를 하지 않았다. 형과 동네 야구식으로 한 기억이 있다. 중학교 때 볼보이, 배트보이 때 타러 왔는데 당시 KIA에 이용규 선수가 있었다. '좋아하는 선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용규는 기억을 못 할 것이다. 그때 장갑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잘 썼습니다(웃음).



나성범이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입단식에서 KIA 타이거즈 47번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FA 금액 최다 타이틀 기록했는데 '최대'라는 말이 부담되지는 않는지.

▲"부담되지는 않고 제 가치를 인정해 주신 KIA 구단주님, 대표님, 단장님 감사할 따름이다. 그에 맞게 준비 잘해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챔피언스필드 개장 1호 홈런 기억하는지. 장타를 기대하고 있는데 최형우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순간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난다. 형우 형은 시합하면서 많이 봤는데 정말 대단한 타자다. 같이 연습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 많이 물어보겠다.

-미국 무대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 않는지.

▲"포스팅하고 좋은 결과 기대했는데 힘든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내에서 열심히 해서 잘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마음을 다졌다. 솔직히 아쉬움은 컸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였고 모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은 게 꿈일 것이다. 나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래도 이 좋은 구단에 왔으니 이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팀 옷 마킹해서 입고려고 한다(웃음).

-지난해 KIA 타선이 침체됐는데 올 시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는 역할이든 준비돼 있다. 장타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모든 역할을 하려고 한다. 잠재력 있는 선수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IA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승이고 V12를 그 일원으로 꼭 이루고 싶다. 지금 김중국 감독님과 장정석 단장님 계시는데 믿고 뽑아주시는 만큼 구단에 보답하고 싶다. 일단 다치지 않는 게 목표인 것 같다.

6년 동안 몸관리 잘해서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홈런존) 차 많이 받고 싶다(웃음).

-중요함으로써 역할도 기대할 텐데.

▲"가지고 있는 노하우 최대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 어린 후배들이 많은데 나이 차이가 있는 선배한테 다가가기 어려웠다. 먼저 다가가서 후배들 편안하게 해주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캠프 때부터 자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챔피언스필드에 나와서 훈련하고 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야구뿐만 아니라 팀 문화가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적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설명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NC에) 애정이 있었고, 솔직히 이적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장정석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여주셨다. 협상이라기 보다는 타타임 자리에서 긴 시간이었지만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하다보니까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 그 부분이 컸다.

-챔피언스필드 통산 성적이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훈련차려고 해서 훈련 친 적은 없다. 한 타석 한 타석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왔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은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합하면서 공도 잘 보였고 경기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올 시즌 구체적인 목표를 이야기해준다면.

▲"수치상으로 홈런, 타점 여러 부분이 더 오르면 좋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3할-35홈런-100타점을 목표로 하지만 숫자보다는 다치지 않고 경기에 나가는 것에 감사함을 가지고 뛰고 있다. 올 시즌도 수치는 안 다치고 한 경기 한 경기 열심히 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성범·최형우 타순 배치 고민"

KIA 김중국 감독

KIA 타이거즈의 김중국 감독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나성범과 최형우, KBO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들을 '어떻게 배치할까?'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다.

김중국 감독은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나성범의 입단식에 참석해 새로운 선수를 맞았다.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긴 김중국 감독은 기대감으로 2022 시즌을 그리고 있다.

"장타력 부재"를 꼽으며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해 부상으로 신음했던 최형우와 나지완과 좋은 몸상태로 반전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나성범까지 전력에 가세했다.

김중국 감독은 "성실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들어서 특별한 주문은 안 했다. 허던 대로 루틴, 습관, 훈련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전에 자세 그런 모습에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자라가 공인한 리그 정상급 선수다. 김중국 감독은 단순한 성적을 떠나 그 결과의 바탕이 된 '프로의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김 감독은 "리더로서 기대되는 모습도 있다. 진중하고, 팀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리더로서 자질이 있다고 본다.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큰 부상만 없다면 자신의 평균 성적은 할 수 있는 선수"고 언급했다.

나성범의 자리는 우익수로 확정했다. 김 감독은 "포지션은 우익수로 정했다. 한 번씩 지명타자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포지션 말고 우익수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프링캠프, 시범경기 등을 통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생각하는 타순은 '3번'이다. 김 감독은 "3번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중국 감독

물론 스프링캠프도 하고, 시너지 효과도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은 3번 타자도 생각하고 있다. 팀에 그 보탬이 될 것 같고 심적으로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우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최형우는 김중국 감독 취임식 날 '6번 타자'를 자처하면서 후배들 뒤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감독의 생각은 다르다.

최형우의 '6번 타자' 언급에 대해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웃음을 터트린 김 감독은 "좋은 후배 선수들이 나오면 뒤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맞는 선수가 성장하고 들어가준다면 최형우의 6번이 좋지만 아직 그래도 최형우는 최형우다. 중심 타순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형우, 나성범이 같은 원소잡이인데 지겹도록 원소 투수 상대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범과 최형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다.

황대인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황대인이 지난해 발전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우리 팀이 도약하려면 황대인, 김석환 두 선수가 더 성장해야 한다. 지속적인 강팀으로 가려면 젊은 선수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줘야 한다. 황대인에게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3번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